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7

제134호

2010년 7월 1일 발행 · 격월간 · 기수월 발행
음력 庚寅年 權氏紀元 1081년 5월 20일 壬子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 · 인쇄인 洪政旭

발행소: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 경북안동시북문동24-1· 760-120
전화(054)857-7714 전송(054)857-7715
서울분사 : 서울종로구필운동285-5 파크뷰타워807호 ·110-044
전화(02)723-4480· 732-9139 전송(02)738-8935
등록: 안동라-000호[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權在琮 · 기자權奇允 / 편집고문權琪奉 · 權宅鎭 · 權赫來
편집위원權海兆 · 權貞澤 · 權甲鉉 · 權五達 · 權奇爽(客員)

종원회비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 1005-601-070006(주)안동권씨종보사

宗 說

겸손謙遜

겸손謙遜은 사전에 ‘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라 하였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 주공周公의 재주와 아름다움이 있어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느니라 : 여유주공재지미 사교차인 기여부족관야 이如有周公才之美使驕且吝其餘不足觀也已 ’ 하였고, 솔로몬은 말하기를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 하였다.

조선왕조 5백년사에 으뜸가는 명재상으로 불리는 황희黃喜는 영의정으로만 30년을 재직하였으며 연이어 세 임금을 섬기면서 93세의 고령으로 죽을 때까지 오로지 나라를 위해 그 삶을 바친 정치가였다. 그러나 그도 젊었을 때에는 다소 거만하고 짓궂은 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던 그가 그토록 관대하고 인자한 군자가 된 데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일로 말미암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가 젊은 시절 암행어사가 되어 평안도로 내려갔을 때의 일이다. 송도松都의 어느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던 그는 산비탈에서 소 두 마리를 몰아 밭을 갈고 있는 늙은 농부 하나를 보게 되었다. 농부는 검정소와 누렁소에 각기 쟁기를 메어 밭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걸음을 멈추고 서서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황희가 문득 소리쳐 농부를 불렀다.

“ 여보시오, 노인장, 검정소와 누렁소 중에 어떤 놈이 더 낫소? ”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쟁기를 멈추더니 밭에서 나와 황희 곁으로 다가와서는, 입에 손을 갖다 대고 귓속말로 일러주었다.

“ 저, 실은, 저 검정소가 누렁소보다 좀 낫소이다. ”

이에 황희가 실소하며 다시 물었다.

“ 아니, 그 한 마디를 귀띔하려고 예까지 뛰어 오시오? ”

이에 농부가 낯빛을 고치고 말했다.

“ 거 무슨 말씀이시오? 젊으신 선비시라 뭘 모르시는구려. ”

“ 뭘 모르다니, 아니, 게서 일러주셔도 될 걸 가지고 굳이 예까지 뛰어 오실 게 무에 있소이까? ”

농부는 정작 손을 내저었다.

“ 그런 게 아니올시다. 미물인 짐승이랄지라도 제가 잘못한단 소리를 들으면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소?. ”

“ 그럼 저 소들이 사람의 말귀라도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오? ”

“ 물론 알아듣고말구죠. 그러게 주인이 ‘ 이리야 ’ 하면 나가고, ‘ 워이워이 ’ 하면 서지를 않습니까. ”

이에 황희는 자기 소견이 농부의 주도함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가축인 일소에게까지도 자격지심이 있으므로 함부로 깔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후로 황희는 재하자에게도 항상 겸손하고 너그러이 대하다 보니 마침내 그처럼 어진 재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보세안민輔世安民하신 시조 태사공의 후덕으로 오늘과 같은 번성을 이룬 우리 권성인도 이같은 겸손의 덕목을 한번 좌우명으로 삼아 백사에 얽힌 갈등도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다.

—— 權琪奉 편집고문

▲ 제22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전이 경북 청송의 군민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 경기 구리시 동구릉의 현릉제에서 권응규 아헌관이 감작鑑酌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문판 전산 · 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를 상시운영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ww.andongkwon.or.kr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 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 안동권씨대동세보의 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ww. andongkwon. or.k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 종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 한글판 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12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 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 ‘ 대동보 열람하기 ’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 한글판대동보 쉽게 보는 방법 ’을 클릭하시면 PD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 ‘ 책갈피 ’ 이용법도 나와 있습니다. ‘ 대동보보기 ’ 화면에서 ‘ 한글판 대동보 정본 ’을 클릭하면 PD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 책갈피 ’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며, 견상見上(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 · 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 고유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본사 :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태사묘 서재 · 760-120· 전화 054)857-7714
서울분사 :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7호 · 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